

<시놉시스>

- 제 목 : 7급 교육공무원
- 주 제 : 청렴을 지키기 위한 고객접점부서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
- 줄거리

지방소도시 교육지원청 재무과에는 시설팀과 관재팀으로 편제되어 있다. 청운의 꿈을 안고 7급 교육공무원에 합격하여 교육지원청에 첫 발령받아 좌충우돌하면서 적응해가는 젊은 공무원의 이야기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현장의 부정부패의 씨앗은 바로 ‘촌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주무관은 공교롭게도 촌지봉투를 받아 과(課) 운영비로 쓰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지역 각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관행적으로 촌지봉투를 받아왔으나, 부정부패의 씨앗이라 생각하는 젊은 공무원과 기존대로 학교에서 보내온 촌지를 모아 뚜렷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상급자 사이에서 의견이 정면충돌한다.

또한 그린벨트지역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신설’을 위해 여당 실세였던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마지막 사유지 매입단계에서 업무를 인수받게 된 신임 주무관은 이상하게도 이 사업에 추진력이 없음을 알게 된다.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향후 중학교 교실이 남아 둘 수 있다는 것과 사업추진 배후에 막강한 실력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겁 없는 공무원은 직접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보낸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육지원청을 발각 뒤집어 놓게 된다.

항상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업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자료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분명 아닌데,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냅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신임 공무원은 직속상관인 교육장과 대부분 직원들이 꺼려하는 여당실세인 국회의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친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한 공무원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뿌듯한 자부심으로 세상 살아갈 힘”이 남게 됨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끝난다.

제목 : 7급 교육공무원

<등장인물>

- 주 무 관 : 이름은 나청림이고, 본 연극의 주인공. 7급 교육공무원으로 합격하여 교육지원청에 첫 임용된 신입이면서 젊은이답게 자기주관이 뚜렷하며 고집이 세고 논리적임
- 관재팀장 : 주인공의 직속상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후배를 보호하고, 잘 이끌어주려는 마음씨 좋은 상사이면서 튀기보다는 모나지 않게 살아가려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
- 시설팀장 : 재무과 소속의 다른 팀장. 관재팀장을 가르쳐낸 선배이기도 하면서 다혈질적이고 관행을 중요시함
- 재무과장 : 원만한 재무과 운영을 희망하면서 똑똑한 신입의 돌출행위 앞에 바람막이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며, 중간관리자의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는 성격임
- 관리국장 : 교육지원청에서 2인자로 상급부서인 도교육청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의 공무원. 상급자인 교육장보다 나이가 많음
- 교육장 : 선거에 의해 당선된 관계로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한 관리국장보다 젊으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음. 상황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말이라도 무시하는 통 큰 스타일임
- 여직원 1, 2(중학교 행정실 사무원), 관리국장실 비서

<제1막 : 재무과 사무실>

무대가 밝아지면 ‘청렴한 교육지원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관재팀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인 주무관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범령집, 각종 책들이 책꽂이 위에 어지럽게 올려져있고, 그 옆에는 각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봉투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젊은 여직원 두 명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무관에게 서류봉투를 건네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서류봉투에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는 라벨이 붙여있다.

주무관 : (여직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자 조그만 편지봉투 하나가 떨어진다. 편지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니까?

여직원1 : 저희 교장 쌤이 갖다드리라 하셨는데요, (두 손으로 핸드백을 앞으로 다소곳하게 잡고 목례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 (편지봉투를 여직원에게 내민다) 쌤, 이건 가져가세요.

여직원1 : (안절부절 하며) 요건 별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드렸어요. 고생 많이 하신다며 교장 쌤이 특별히 갖다드리라고 부탁하셨어요.

주무관 :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촌지 봉투를 준다고 해서 안 될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직원이 봉투를 받지 않자 여직원의 핸드백에 봉투를 넣어주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면서 다른 여직원에게 서류봉투를 달라고 한쪽 손을 내민다)

여직원1 :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옆에 엉겨주춤 서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저, 저기요?

주무관 : (옆에 서있던 다른 여직원으로부터 서류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내보더니 여기에서도 편지봉투가 나오자 어이없다는 듯이 그 편지봉투를 여직원을 향해 흔들면서) 쌤, 이건 뭐예요?

여직원2 : 그게 말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똑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주무관 : (피곤하단 듯이 고개를 뒤로 젓히며 천정을 물끄러미 한참동안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며 일어선다) 있잖아요, 쌤들. 지금까지는 이처럼 관행적으로 촌지봉투를 갖다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의 씨앗은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학교로 돌아가시거든 교장 쌤에게 잘 설명해 드리세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그러면서 촌지봉투를 여직원에게 건네면서 살며시 자리에 앉는다)

여직원2 : (주무관이 내미는 봉투를 마지못해 받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려 한손으론 얼굴을 매만지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직원1 : (다소곳이 양손으로 핸드백을 앞으로 잡고 여직원2와 나란히 서 있으면서 낮은 상황에 어리둥절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

(이 모습을 뒤쪽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설팀장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관재팀장 자리로 걸어간다. 그 때 관재팀장은 외부출장 나갔다가 사무실로 허겁지겁 들어온다.)

시설팀장 : (들고 온 서류철 하나를 관재팀장 책상위에 약간 세게 놓으며) 이봐, 관재팀장.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은 부하교육을 어찌 시켰기에 저 모양이야. 각 학교에서 보내오는 촌지봉투를 모두 거절하면 어떡해. 뒷감당할 수 있어!!

관재팀장 : (무슨 말을 하는지 상황파악이 안되어선지 어리둥절해 한다) 선배, 무슨 말인지 앞뒤를 말해줘야 알아먹죠. 앞뒤 자르고 몸통만 말하면 우이 알아요. 학교시설예정부지 매입문제로 우리 팀 정신없는 거 선배도 아시면서 그러시네. 저는 출장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구요. 뭘 얘기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야 알지, 아이 참.

시설팀장 : (한손으로 주무관이 있는 쪽을 가리키며) 보면 몰라. 각 학교에서 보내오는 촌지봉투를 모두 돌려보내고 있잖아. 학교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관재팀장 : (그제 서야 상황파악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

됐군요. 저 친구가 이제 공무원시험 7급에 합격해서 첫 부임해 왔잖아요. 제가 잘 타이르세요. 노여움 푸세요. 선배답지 않게 흥분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시설팀장 어깨를 툅 치며)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시설팀장 : (앞을 보며 자기 자리로 걸어가면서 손을 들어 뒤로 흔든다) 똑바로 잘 혀, 이 사람아!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말구.

관재팀장 : (한숨을 쉬면서 의자에 깊숙하게 앉는다. 고개를 의자에 의지한 채로 한참동안 천정을 응시하며 멍 때리고 있다가 주무관 있는 쪽을 흘깃 쳐다본다) 나 주무관! (불러도 대답이 없자 조금 큰소리로 다시 부른다) 나처럼 주무관!

주무관 : (여직원 두 명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 일어나서 팀장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네에, 팀장님! 부르셨어요.

관재팀장 : 아직 안 끝났나요?

주무관 :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서류봉투를 주섬주섬 정리하면서 여직원들에게 말한다)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다가 의문사항 있으면 전화드릴 테니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용무 끝나셨죠? (여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잘 가세요. 그럼 이만.

여직원1, 2 : (관재팀장을 향해 등 돌리려는 주무관을 바라보며) 수고하세요. (상기된 얼굴로 목례를 하면서 황급히 퇴장한다)

주무관 : (한손에는 수첩을 다른 한손엔 연필을 챙겨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팀장에게 다가간다) 부르셨습니까, 팀장님.

관재팀장 : (앉을 의자를 권하면서) 쉬엄쉬엄하라고, 여기 잠깐 앉지 그래. 많이 바쁘지. 우리 팀 일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할만한지 모르겠네. 어때?

주무관 : (의자에 앉으면서) 덕분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재팀장 : 나 주무관,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 이번 7급 교육공무원을 10명 채용했는데, 나 주무관이 전체 3등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재목감이니까 잘 가르치라고 하시던데. 나 주무관은 좋겠어.

주무관 : (오른손을 머리 뒤로 올리면서 머리를 긁는다) 아니, 별말씀을요. (머리를 꾸벅 숙이면서)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재팀장 : (주무관을 쳐다보며) 우리 교육청에 온지 얼마나 되었지?

주무관 : 네에, 개월 수로는 3개월 되었습니다.

관재팀장 : 그렇군. 3개월이면 알건 다 알겠구먼. 요번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드디어 100대1을 넘어섰다던데. 이거 장난이 아니구먼. 그런데 나 주무관은 3등을 했으니, 두말 하면 잔소리겠네.

주무관 : (두 손을 무릎위에 가지런히 모은다) 과찬의 말씀은요.

관재팀장 : 나 주무관, 알다시피 여긴 현장일세. 공부할 때와는 다르네. 때로는 피치 못할 경우가 있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학교에서 보내온 춘지봉투를 모두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그 춘지봉투의 용도도 알고 있나?

주무관 : 네에, 전임자로부터 들어서 조금은요.

관재팀장 : 그건 나 주무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냐. 지금까지 우리 팀에서는 각 학교에서 준 것을 모아서 우리 재무과 직원 경조사나 각종 행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요긴하게 써 오고 있어. 그걸 모두 돌려

보내면 이러한 부서경비는 무엇으로 충당할 텐가?

주무관 : 그건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써야죠. 목적이 뚜렷한데요. 그리고 예산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팀장님!

관재팀장 :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예산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봤나?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면 왜 이 촌지를 받겠나, 이 사람아. 우리 부서 경비를 우습게 아는데, 우리 부서경비가 장난이 아니야. 이걸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귀찮다는 듯이)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나 주무관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당분간은 해 오던 대로 하게나.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주무관 : 팀장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순식간에 알려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쁜 줄 알면서 해오던 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재팀장 : 그래, 그러면, 나 주무관은 당신이름처럼 청렴하고, 우리 재무과 다른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걸 과장님은 물론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야, 이 사람아.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면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 튀지 말고. 당신 하나로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면 되겠어. 독불장군 없어, 알아들어?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확 밀치며 퇴장한다)

(무대조명 어두워진다)

<제2막 : 국장실>

무대가 밝아지면 무대 위에 교육지원청 국장실 ‘ㄷ’자 소파와 소파 가운데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놓여있다. 국장 앞 테이블 위에는 결재 받을 때 사용하는 검정색 결재판과 찻잔이, 과장 앞에는 업무용수첩과 찻잔이 놓여있다. 소파중앙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관리국장이 화가 잔뜩 난채 앉아있고, 그 앞에 주눅 든 재무과장이 앉아 있다.

관리국장 : (큰 소리로 말한다) 재무과장,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결재판을 한손으로 들어 과장을 향해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도교육청 관리국장한테 이렇게 막무가내로 깨져도 되는 거냐고? (흔들던 결재판을 테이블위에 던지듯이 “짱” 놓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앉는다) 이거 도대체 뭐하자는 거야, 지금. 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을 향해 양손을 펼쳐 보이면서 목소리에 힘을 들여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과~장~님.

재무과장 : (고개를 숙인채로 두 손을 맞잡고 다리 사이로 가져가면서 불끈 두 손에 힘을 준다) 면목이 없습니다, 국장님. (고개를 다시 조아리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뜬다)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관리국장 :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 그 친구 징계해서 저기 시골 촌구석 학교로 전출시키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더욱 큰소리로 으박지르듯이 말한다) 알았어요? (땅이 꺼져라 크게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한다) 이놈 완전히 꼴똥이잖아. 내 공무원생활 30년 동안 이런 놈은 처음보네. 아이구야~, 어떻게 이런 기본도 안 된 놈이 여기 왔지? 골 때리네, 이거...

재무과장 : (국장을 쳐다보며) 국장님. 그 친구,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출내기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니 용서하세요. 임용성적이 전체 3등할만큼 똑똑한 친구입니다.

관리국장 : (무언가 생각난 듯이 오른손을 오른쪽 이마위로 올리면서)

지난번 그 친구인가? 그래, 그 친구, 똑똑하던 거 같던데, 아니었던가?

재무과장 : 아닙니다. 아직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관리국장 : 이렇게 아니라 그 친구 한번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나 들어 봅시다. 왜 그랬는지, 지금 불러오세요.

재무과장 : 네에, 알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로 관재팀에 전화를 건다) 나처럼 주무관 지금 바로 국장님 방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국장님이 급하게 찾으시니까.

(잠시 후에 나처럼 주무관이 업무용 수첩을 한손에 들고 들어온다)

주무관 : (고개를 45도로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관리국장 : (방으로 들어오는 주무관을 바라보며) 자네가 그 친구가. 그래, 여기 와서 앉게.

주무관 : (재무과장이 앉아 있는 쪽 소파로 가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과장 옆에 앉는다) 감사합니다.

(국장실 비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무관 앞에 놓는다)

관리국장 : 차 한 잔 들게. 이 차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차가 아냐. 옛날 궁궐 속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궁중한방차야. (웃으면서 어서 먹어보라고 한 손으로 권한다)

재무과장 : (국장이 웃자 덩달아 같이 웃으면서 옆에 앉아 있는 주무관을 바라본다) 맞아, 귀한 차야. 국장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사하는 차일세. (이렇게 말하고서는 쑥스러운지 국장의 눈치를 슬쩍 살핀다)

주무관 : (갖고 들어간 업무용 수첩을 무릎위에 놓고, 찻잔을 두 손으로 들어 한 모금 마신다) 맛있는 차 맛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 (재무과장을 슬쩍 쳐다보다가 주무관을 바라본다) 나처럼 주무관이라고 했나?

주무관 : (찻잔을 테이블위에 내려놓으며) 네에, 국장님.

관리국장 : 공무원에 임용된 지 3개월 되었고. (주무관을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한실력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가?

주무관 : (국장을 바라보며) 네에, 국장님. 한실력 국회의원님은 우리 교육청 관할지역 3선 국회의원으로 여당 정책의장이십니다.

관리국장 : 그래, 잘 알고 있구먼. 그런데 말이야. (테이블 위에 있는 검정색 결재판을 열어보고 다시 닫으면서 주무관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결재판을 툭 던진다) 그게 뭔지 아는가?

주무관 : (국장이 던져준 결재판을 열어보고 흠칫 놀란다) 아니, 이걸!!

관리국장 : (주무관을 응시하며) 알고 있는 눈치구먼, 그게 뭐냐?

주무관 : (주저주저하며) 네에, 국장님.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신설사업’ 관련해서 제 의견을 적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를 국장님이...(말을 잇지 못하고 국장과 과장을 번갈아가며 쳐다본다)

관리국장 : (언성을 약간 높이면서 주무관을 똑바로 응시한다) ‘중학교 신설사업’이 당신 사업인가, 아니면 교육청 사업인가?

주무관 : (두 손으로 무릎위에 놓여있는 수첩을 매만지면서 말을 한다)
그야, 교육청 사업이지요?

관리국장 : 당신이 대답한대로 정말 교육청 사업이 맞는가? 당신 말이 맞는다면 왜 여기에 당신 개인의견이 필요하지, 그리고 아무리 신출내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정도라면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외부로 나가는 게 기본상식 아닌가?

주무관 : (한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그게 말입니다. 그게...(말을 잊지 못한다)

관리국장 : (더욱 언성을 높이며) 그게 어땠다는 말인가?

주무관 : (무릎위에 있던 수첩을 펼치면서) 국장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미 그린벨트지역에 중학교 신설사업이 확정되어 토지매입예산도 확보되어 있었고, 또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용지사용’도 승인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저로서는 학교시설예정부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면 끝나는 업무였습니다.

관리국장 : (“으~흠”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는다) 잘 알고 있구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말을 계속 하라는 듯이 주무관을 쳐다본다)

주무관 :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갈수록 도시공동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옆에 기획혁신도시계획이 발표되어 중학교 신설예정부지는 구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구도시보다 신도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도시가 되는 중학교 신설예정지역에는 저 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할 것 이구요, 지금 있는 중학교 교실마저도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게 이상합니다. 아무리 낫발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뒤에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한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찻잔을 한손으로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찻잔을 내려놓는다)

관리국장 : (등을 소파 뒤에 붙이면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위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편지는 뭔가?

주무관 : 아~ 네에, (이마에 땀이 흐르는지 손바닥으로 땀을 훔친다)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더니만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에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었고, 보좌관이 이걸 전화로 하기 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면 의원님께 전달하겠다고 해서 편지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한 순수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부탁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관리국장 : (처음보다 화가 많이 누그러진 듯) 그렇다면, 왜 이것을 당신 직속상관인 관재팀장이나 여기 있는 재무과장이랑 상의하지 않았나? 아무리 나 주무관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직장일세. 절차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는 최고 어른신인 교육장님이 계시는 곳이네. 이게 뭔가. 아무것도 모른 체 도교육청 관리국장님한테 아침부터 야단맞고. 우리는 그렇다 쳐, 도교육청은 또 무슨 날벼락인가? 여당 정책의장한테 제대로 한방 먹지 않았나, 이 사람아. 당신 하나로 여러 사람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 이 정돈 예상했을 텐데,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말이야. 안 그래!!

주무관 :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거푸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훔치다가 왼손으로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수건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이

마를 닦는다) 죄송합니다. 전 이게 바로 국회의원님에게 전달되어 실상을 조사하고 재검토되어 개선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뒷골이 당겨오는지 한손으로 뒷머리를 잡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여당 중진위원의 인격을 믿고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정보를 제공했건만. (갑자기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음을 느끼면서 작은 신음을 토해낸다) 으윽~

관리국장 : 처음이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을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한손으로 재무과장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과장이랑 먼저 상의부터 해. 직속상관이잖아. 직속상관을 무시하지 마, (재무과장을 가리키던 손의 방향을 주무관 쪽으로 바꾸며) 당신이 무시할 만큼 이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거든.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당신 직속상관보단 못해, 알았어. 알았으면 꼴 보기 싫으니까 모두 나가봐! (재무과장을 쳐다보며) 그리고 재무과장은 아랫사람들 단속 좀 잘 하고. (앉아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선다)

(국장이 일어서자 덩달아 재무과장과 주무관도 자기 업무용 수첩을 재빠르게 챙겨 들고 동시에 일어나면서 국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퇴장한다)

(무대조명 어두워진다)

<제3막 : 교육장실>

무대가 밝아지면 책상하나가 있고 책상 중앙에 ‘교육장 제대로’라는 명패가 있다. 그 옆에 컴퓨터 24인치 모니터 2대와 여러 가지 펜들이 들어있는 연필꽂이 하나,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 사온 카라멜 마끼아또 커피 잔에 빨대가 꽂아진 상태로 놓여있다. 책상 반대쪽에는 여러 신문사에서 배달된 신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놓여있고, 교육장이 의자에 앉아 아침신문을 양손으로 펼쳐보고 있다.

교육장 : (뭔가 못마땅하듯이 보던 신문을 연거푸 넘기면서 투덜거린다) 이거 읽을게 없구먼, 읽을게 없어. 무슨 신문이 이래. 신문 값이 아깝다 아까워. (읽던 신문을 대충 접어 책상 귀퉁이로 던지면서 가지런히 놓인 신문 중 가장 위에 있는 신문을 집어 들고 펼쳐보더니 깜짝 놀란다)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출입문 쪽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부른다) 비서실장, 비서실장 있나!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에이, 어디 간 거야. (책상위에 있던 전화기 키폰을 급하게 누른다. 상대방 쪽에서 받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관리국장, 관리국장! 지금 빨리 내방으로 오세요. 빨리요.

(잠시 후에 관리국장이 업무수첩을 한손에 들고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가우뚱거리면서 천천히 들어온다)

관리국장 :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교육장 호출에 교육장실로 들어오면서 말을 한다) 교육장님, 무슨 일로...

교육장 : 며칠 전에 한실력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역유지와 기관장 오찬 간담회 했잖아요, 그 간담회에 내가 갔었거든, 그때 의원님이 나에게 신설 중학교사업 빨리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더니만, 어찌하였기에 이게 신문에까지 나왔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국장에게 보여주며) 이거 함 보세요? 요거 여당 정책의장이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하였네. (말하면서 국장을 빤히 쳐다본다)

관리국장 : (교육장이 건네주는 신문을 급하게 펼쳐본다) 정말 그러네요. “국회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인 중학교 신설을 위해 많은 애를 써서 교육부로부터 특별예산을 따놓았는데, 교육지원청 당국의 무성의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신문 기사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교육장을 흘끗 훑쳐본다)

교육장 : 난감하구만, 이거. 그렇다고 국회의원한테 대들 수도 없고. (책상위에 두 팔꿈치를 붙이고 두 손을 맞잡아 턱에 귀 채로 심각한 듯이 국장에게 말한다) 지금 이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장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중앙지가 아니라 지역신문이라 서요. (그리고 나서 혼잣말을 한다) 이걸 어쩔담. 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알았을 텐데...

교육장 : (못마땅하듯이 언성을 조금 높이면서 말한다) 아니, 국장님. 지금 중학교 신설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냐고요?

관리국장 :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네에, 교육장님. 그 사업은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 보고했듯이 신설예정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음을 핑계로 시청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 맹지(盲地)로 아무 소용없는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학교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시청으로부터 도로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장 : 이 상황에 허가부서인 시청에서 도로허가를 안 해줘 늦어지고 있노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빨리 시청에 한 번 더 도로허가 재촉하시고요, 그러면서 신설부지 매입합시다. 어떠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관리국장 : 네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교

육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중학교 교실이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이겠지만 언론에서 이걸 또다시 걸고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독박 써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교육장 :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여당 실세인 정책의장 이에요. 그러면 관리국장이 의원님 설득할 자신 있나요? 설득할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통명스럽게 국장을 바라보면서) 이 업무를 재무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나요. 이렇게 아니라 지금 재무과장과 담당자 부르세요. 내가 직접 지시할 테니까. (책상위에 있던 카라멜 마끼아또 커피 잔에 꽂아져 있던 빨대를 빼 책상너머로 확 던지면서 짜증스럽게 한손으로 커피 잔을 들더니 꿀꺽꿀꺽 마셔 버린다)

관리국장 : (책상위에 있는 전화기 키폰으로 재무과에 전화를 건다) 나, 관리국장인데요. 재무과장하고 나 주무관 찾아서 교육장님 방으로 지금 오라고 하세요. (전화기를 놓으면서 옆 눈으로 교육장 눈치를 살피며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문제로 지난번에 재무과장하고 담당 주무관을 불러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장 : (새롭다는 듯이 국장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등을 붙인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 추진력 하나만큼은 짱이신데... (말을 흐리면서 잠시 시간이 흐른다)

(이때 재무과장과 주무관이 업무수첩을 들고 교육장실로 들어온다)

재무과장 : (가볍게 목례를 하고나서) 부르셨습니까, 교육장님.

주무관 : (옆에서 재무과장과 같이 목례를 한다)

교육장 : (들어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어서 오세요, 재무과장. 요즘 재무과 업무가 많지요.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지역신문 보셨나요? (재무과장과 주무관을 번갈아가면서 바라본다)

재무과장 : (교육장을 보며)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듯이 국장을 바라본다)

관리국장 : (재무과장이 자기를 바라보자 들고 있던 신문을 재무과장을 향해서 쑥 내민다) 자, 여기, 이거...

재무과장 : (국장으로부터 신문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헤드라인을 보면서) 아니, 이걸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신설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문에까지 나왔을까요? (옆에 서있던 주무관을 향해 이맛살을 찡그리면서, 혹시나 해서 바라본다)

관리국장 : (과장을 향해 한손을 들어 저으면서) 어~허, 아니야. 이걸 한실력 국회의원 쪽에서 언론플레이한 거야. 지난번 기관장 오찬 간담회 기억나나? 그때 지역을 위해 자기가 힘을 써서 특별예산까지 확보하였노라 공치사를 했나봐. 그리고 내년이 총선이잖아. 이번 간담회를 최대한 활용한 거겠지, 언론에까지 흘리면서... 문제는 이번일로 우리 교육장님 입장이 난처해 지셨다는 거야.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재무과장 :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학교 신설예정부지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땅주인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보된 예산이야 땅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다주고 살만큼 충분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교육장 : 이 사람들, 이거 클 날 소리하고 있고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할 텐가, 언제부터 우리가 일처리하면서 막연한 추측으로 일했었나. 물론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어도 지금까지 우리지역 숙원사업이었고, 여기에 여당 실세 국회의원이 몸소 나서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네. (답답하다는 듯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서 무슨 할 말 없느냐는 듯이 조용히 옆에 서있는 주무관을 바라본다)

주무관 :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숙인다)

관리국장 :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닐세.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풀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게 쉽지가 않구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야.

주무관 : (한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면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제 생각을 말해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장 : (주무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언의 승낙을 한다)...

(관리국장과 재무과장이 동시에 주무관을 바라본다)

주무관 :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오늘 지역신문에 난 게 불쾌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두들겨 맞고 끝나는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걸 피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향후 시민단체나 감사원 감사, 혹은 중앙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때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불행 중 다행이란 것이지요.

교육장 : (빨리 본론을 말하란 듯이 재촉한다) 그래서...

주무관 : 이미 확보된 사업예산은 연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을 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기보다는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반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한 거죠.

교육장 :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나?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설득이 가능

하겠냐는 말일세.

주무관 : 우리 교육청 직원 대부분이 이 사업추진에 주저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다음 총선에 유리한 절호의 기회를 날리는 상황이니 심하게 반대하실 겁니다.

교육장 : 그야 나라도 당연히 반대하지, 두말하면 잔소리인거고, 그건... (자리를 고쳐 앉는다)

주무관 : 먼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 자료를 제공하여 설득하는 것이지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였노라고 말입니다. 마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 제 친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 : 그러니까 주무관 말은 여론을 조성하여 이슈화하자는 거네. 주무관이 말하는 것처럼 이슈화만 된다면 의원님은 오히려 용단을 내리신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주민은?

재무과장 : 그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만들어갈수 있습니다. 시청의 협조를 얻어 중학교 신설보다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전환하는 겁니다. 마침 초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생활체육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요. 이미 시청에서는 전원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청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서로 윈-윈(Win-Win) 하는 것이지요.

교육장 : 으~흠, 그럴 듯 하구만. (국장의 의중이 궁금하다는 듯이 관리국장을 바라보며 묻는다) 국장 생각은 어떠신가?

관리국장 :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입술을 앞으로 내민다) ...

(무대조명 어두워진다)

<제4막 : 재무과 사무실>

무대가 밝아지면 ‘청렴한 교육지원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관재팀 나청렴 주무관은 책상위에 서류철들이 엉클어져 있는 가운데, 두 손을 모아 턱에 귀 채로 핸드폰용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고개와 발바닥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음악 삼매경에 빠져 있다. 교육장이 관리국장을 대동하고 등장한다.

교육장 : (수첩을 들고 뒤따라오는 국장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약간 큰소리로 말을 한다) 여기가 재무과인가요?

(갑작스러운 교육장 등장에 일하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부동자세가 되어 목례를 한다. 재무과장이 빠르게 교육장에게로 달려온다)

교육장 : (손을 들어 답례하며)재무과장, 나청렴 주무관 자리는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 (눈을 감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던 주무관에게로 달려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나지막하게 말을 한다) 교육장님 오셨어요.

주무관 : (실눈을 떠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이어폰을 빼면서 일어선다) 오셨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장 : 나청렴 주무관, 일 잘하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건가요? (주무관 손에 들려있는 이어폰을 빼앗아 자기 귀에 꽂아 보고 나서 다시 주무관에게 돌려준다)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세요, 알았어요? (주무관의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퇴장한다)

(서있던 공무원들이 일제히 “안녕히 가세요.” 고개 숙여 인사한다. 이때 조아진의 ‘돌려라 돌려’ 노래가 흘러나온다. ♪~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두 주먹 불끈 힘이 있고/ 세상을 호령할 기백이 있다면/ 돈도 명예도 내가 만든다/ 돌려라 돌려/ 인생을 돌려버려라 ~♪)

(무대조명 어두워진다) 끝.